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문항 개발을 위한 문해 영역 및 수준 설계*

박소연 (안양대학교, 조교수)†

이지혜 (한림대학교, 교 수)

허 준 (영남대학교, 조교수)‡

요 약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문해력 수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과거의 자기 응답식 조사 방법이 아니라 수준별 문해력 측정을 위한 조사를 통해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 영역과 문해 수준을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과 국내외 유사 조사도구 분석을 통해 문해 영역과 수준에 대한 질문지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해 영역, 문항 형식 및 생활 영역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문해 영역별 중요도, 문해 측정 영역, 문해 영역별 문항 난이도 수준을 확정하였다.

향후 성인 문해력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성인 문해력 조사 문제은행 구축, 성인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 등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해 영역과 문해 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 문해교육 정책의 실효성 있는 데이터 생산을 위하여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성인 문해교육, 문해력, 문해력 조사, 문해 영역, 문해 수준

* 「국민 기초 문해력 측정 도구 개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연구의 결과를 본 논문의 취지에 맞추어 재구조화 한 것임.

† 제 1저자: 박소연(430-71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sypark@anyang.ac.kr)

‡ 교신저자: 허 준(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번지 영남대학교, joonh@yu.ac.kr)

I. 서론

성인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의 하나이다. 봉건 시대에 특정 계층에게만 필요했던 문해력은 근대화 이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초 능력이 되었다(Youngman 2006; 허준 200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문해교육은 사회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문맹 퇴치’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오혁진·허준, 2011). 오늘날에도 문해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평생교육 정책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2006년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매년 약 350여개의 문해교육기관과 2만 여명의 학습자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거점 문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있다. 2007년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저학력 문해 학습자들이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학력 취득의 길도 열렸다(변종임 외, 2012).

국가의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은 문해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비학령기인 성인들의 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한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와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은 1차적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문해력 조사는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적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허준 외, 2011).

초창기 국내외의 문해력 조사는 비문해자 발굴을 목표로 하였다. 이 때의 문해력 조사는 정확한 문해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나 학력 수준을 묻는 자기 응답식 조사였다. 근대화 초기에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문해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이다(Wanger, 2008).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요구되는 기초 문해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자기 응답식 조사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문해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OECD의 ‘International Assessment of Literacy and Skill’(이하 IALS), UNESCO의 ‘Literacy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gramme’(이하 LAMP), 영국의 ‘Skills for Life’(이하 Sfl), 프랑스의 ‘Information et Vie Quotidienne’(이하 IVQ), 독일의 ‘Level One’(이하 LEO)이 대표적이다(OECD & Statistics Canada 1995; OECD & HRD Canada 1997; OECD, 2013; UIS, 2009; DFES, 2001, 2003; 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198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 연구’, 2002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2008년도 국립국어원의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가 대표적이다(최운실·백은순, 1989; 이희수 외, 2002; 국립국어원, 2008). 이 조사들은 해외 조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조사에 따른 수준별 문해력 판

별 방식을 채택하는 등 국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문해력 데이터 확보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 조사가 제시하고 있는 문해의 의미, 영역, 수준 등이 실증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상이하여 상반된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각 조사가 일회성 조사로 끝나 정책적 활용도가 높지 못한다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허준 외, 2013).

평생학습정책 기반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적 데이터로서 국민들의 기초적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도구의 개발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문해력 조사가 필요하다(이지혜·허준, 2014).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도구의 개발과 활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문해력 조사 도구 설계 단계에서 문해 영역과 수준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해력 조사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에 필요한 문해 영역 그리고 문해 영역별 수준과 난이도 등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 문해력 조사 동향

성인 문해력 조사는 실시 맥락에 따라 대략 국제기구와 각국에서의 조사 연구, 그리고 국내 조사 연구의 세 흐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문해력 조사에 대한 관심으로 환기하고 각국의 문해력 조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OECD와 UNESCO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기구에서의 연구이다. UNESCO는 오랫동안 문해교육 캠페인을 펼치면서 기능문해의 개념을 제기하고 강조해왔지만, 국제적인 문해력 조사 비교를 선도한 것은 OECD이다. 문해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OECD는 1995년 이후 IALS 조사를 개발하여 여러 나라에서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이는 ‘Adult Literacy and Lifeskill’(이하 ALL)조사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성인의 인지적인 일터 역량에 주목한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하 PIAAC)로 변화하여 왔다. 이 같은 OECD의 선도적 흐름 속에 UNESCO는 새로이 LAMP라는 조사틀을 개

말하여 국제 비교보다는 각국의 비문해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춘 문해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OECD & Statistics Canada 1995; OECD & HRD Canada 1997; OECD, 2013; UIS, 2009). 최근 유럽의 몇 국가에서 각국 문해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자국 내 문해교육 수요를 측정·진단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여 각국 특성에 맞는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Sfl 조사와 프랑스의 IVQ 조사, 그리고 독일의 LEO 조사가 있다(DfES, 2001, 2003; 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 이 조사들은 문해력 조사 문항을 구성할 때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PIAAC 등 국제 조사와는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이지혜·허준, 2014).

국내 문해력 조사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몇 번의 분기점을 겪으며 문해력 조사의 질적 양적 발전을 보인다. 시기적으로 1959년에 중앙교육연구소의 ‘문맹자 조사’에서는 문맹, 반해, 문해의 구분에 따라 문해력 조사(김중서, 1961)를 실시한 것으로 제외하면 대체로 1990년 전후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대상 특화 조사가 문해력 조사연구의 맥을 이어왔다(황종건·윤복남·이지혜, 1987; 정지웅 외, 1989). 이는 국내외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맞물려 한국교육개발원 중심으로 생활기능문해 관점에서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최운실·백은순, 1989). 이어 2000년대 들어 2002년에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역시 생활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해력 조사를 실시한다(이희수 외, 2002). 가장 최근에는 2008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립국어원, 2008). 이러한 성인 문해력 측정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의 국내 조사도 이루어졌다.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당시 OECD의 IALS 조사 도구를 번안하여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IALS의 후속 조사인 ALL과 PIAAC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정태화 외, 2003; 임언 외, 2004; 고용노동부, 2013).

2. 성인 문해력 조사의 주요 쟁점

문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문해’는 그 시대와 공간이 무엇을 비문해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해의 가치를 무엇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문해’라는 문제 영역의 범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문해’란 일종의 복합의미체(many-meaning thing)로, 쓰이는 맥락과 의도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 의미들은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중층적이다(이지혜, 2003: 59). 그러므로 문해에 대한 그 어떤 접근도 문해에 대한 부분적 이

해박에 전해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를 규정하고 사정(査定)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비문해 현실을 진단하고, 문해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하는 사회적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성인 문해력 조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이지혜·허준, 2014). 첫째는 문해력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해의 의미는 기초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 등의 기초문해(basic literacy),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의 문자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 비문해자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와 억압적인 사회질서를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비판문해(critical literacy) 등과 같이 다양하게 규정된다(Freire & Macedo, 1987). 과거에는 기초문해 수준에서 문해력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국내외 조사에서는 기능문해의 관점에서 문해력 조사를 하고 있다(UIS, 2009).

두 번째 쟁점은 측정해야 하는 문해 영역에 대한 문제이다. 문해 영역은 문해력 조사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해력 조사는 기초문해로 규정되는 읽고, 쓰기, 셈하기의 3R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OECD가 개발한 IALS의 산문문해(prose literacy), 문서문해(document literacy), 수리문해(quantitative literacy)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OECD, 2000; Wanger, 2008; UIS, 2009). 오늘날에는 문해력 조사 실시 주체 및 조사의 목적 등에 따라 문해 영역은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며 3R과 IALS의 문해 영역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이지혜·허준, 2014).

세 번째 쟁점은 문해력 측정 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이 또한 문해력 조사에서 설정하는 기초 문해력 수준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문해력 수준에 대한 측정은 비문해/문해의 이분법적 판별, 학교급에 따른 판별, 그리고 문해력 수준에 따른 단계적 판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근대화 초기에는 비문해/문해 판별의 방식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문해력 조사는 학교급에 따른 판별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최운실·백은순, 1989; 이희수 외, 2002; 국립국어원, 2008). OECD의 IALS에서 5단계 문해력 수준 모델을 제시한 이후 국제적으로는 통상이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주요국에서 실시되는 기초 문해력 조사는 IALS 기준으로 수준1, 또는 수준2에 해당하는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문해력 조사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것이다. Wagner(2008)는 성인문해력 조사 모델을 ‘국가 인구센서스모델’(national population census model), ‘대규모 문해력 평가 모델’(large literacy assessment model), ‘SQC 모델’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국가인구센서스 모델은 문해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응답의 형태로 문해력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학력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문해, 또는 비문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둘째, 대규모 문해력 평가 모델은 OECD의 IALS, ALL, PIAAC에서

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대규모 표집을 통해 자기 응답의 방식이 아니라 응답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해 능력 평가로 문해력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수준과 점수의 형태로 보고된다.¹⁾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은 소위 ‘SQC 모델’이다. ‘국가 인구센서스 모델’과 ‘대규모 문해력 평가 모델’의 중간 형태로 국제 비교와 같은 국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 문해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 작은 규모로(Smaller), 신속하게(Quicker) 그리고 낮은 비용(Cheaper)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Wagner, 2008: 665).

성인 문해력 조사의 쟁점을 살펴볼 때, 다수의 문해력 조사에서 문해의 개념은 ‘기능문해’의 개념에 의거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문해 영역에서는 3R과 IALS의 문해 영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문해 수준은 조사 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국내의 경우 학력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IALS의 5단계 문해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기초 문해력 조사의 경우에는 수준1 또는 수준2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조사 방식에서 국가별로 문해 진단을 위한 모델로는 SQC모델의 현실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지혜·허준, 2014).

3. 성인 문해력 조사 영역과 수준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가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문해 영역과 수준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역과 수준의 문제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실시한 문해력 조사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해의 수준과 영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전통적으로 문해력에 대한 측정은 기초문해 수준에서 3R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1959년의 ‘문맹자 조사’와 1989년의 ‘한국인 문해실태 조사연구’, 그리고 2002년의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모두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문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는 전통적인 문해 영역보다는 국어 능력에 초점을 맞춰 조사 영역을 사실적 문해, 추론적 문해, 비판적 문해로 구분하였다(최운실·백은순, 1989; 이희수 외, 2002; 국립국어원, 2008).

OECD의 IALS 조사가 개발되고 국제적으로 활용되면서 IALS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해

1) OECD의 문해 조사 방법의 경우에는 조사 기간도 길고 비용이 높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Druine & Wildemeersch, 2000; Hamilton & Barton, 2000).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IALS는 문해 영역을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저개발국의 문해교육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UNESCO의 LAMP도 이런 기본 영역에서 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OECD & Statistics Canada 1995; OECD & HRD Canada 1997; OECD, 2013; UIS, 2009). 독자적으로 문해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기본적으로 문해의 형식에 있어서 IALS의 틀을 따르는 동시에, 영국의 SiL은 문해력, 수리력, ICT, 프랑스의 IVQ는 읽기, 쓰기, 이해력, 독일의 LEO는 읽기와 쓰기를 문해 영역에서 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DfES, 2001, 2003; 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

<표 1> 국내외 문해조사별 문해 영역

구분	문해 조사	문해 조사 영역
국내	문맹자 조사 (김중서, 1961)	읽기, 쓰기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 연구 (최운실·백은순, 1989)	읽기, 쓰기, 셈하기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 조사 연구 (이희수 외, 2001)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이희수 외, 2002)	읽기, 쓰기, 셈하기
	국민의 기초 문해력조사 (국립국어원, 2008)	사실적 문해, 추론적 문해, 비판적 문해
국외	OECD: IALS, ALL. PIAAC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ICT, 문제 해결능력
	UNESCO: LAMP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영국: SiL	문해력 (산문, 문서), 수리력, ICT
	프랑스: IVQ	읽기, 쓰기, 이해력 (산문, 문서)
	독일 : LEO	읽기, 쓰기 (산문, 문서)

문해력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기초 문해력 측정 수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수준에서 판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다양한 선행 조사 연구가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국내외 조사 도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국내의 문해 조사는 문해/비문해/반문해 등 기초 문해 수준에서의 문해 판별이 이루어지다가²⁾ 198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 연구’ 이후로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 문해 수준을 세분화 하여 제시하는 문해

2) 문해/비문해의 이분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학력 중심의 기초 문해 판별의 시도는 1950년에도 이루어진 바 있다. 1950년대 ‘전국민문맹퇴치교육’에서 정책 대상자 발굴을 위한 비문해자의 기준은 교육법에 명시된 바,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과 정책성과 보고를 위한 문해율의 산정도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오혁진·허준, 2011).

조사가 이루어졌다. 1989년의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연구’와 2002년의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기초 문해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 조사’의 경우는 정답률에 따라 다시 이 수준을 기초 1수준, 기초 2수준, 기초 3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최운실·백은순, 1989; 이희수 외, 2002). 반면, 2008년도에 실시된 국립국어원의 ‘국민의 기초 문해력조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을 기준으로 총 5개 수준으로 문해력을 판정하고 있으며, 하위 수준인 0수준과 1수준을 문해력 부진 정도로 판정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08).

한편 국제기구 및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학력 수준 보다는 성인 기초 능력 수준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IALS를 비롯해 ALL과 PIAAC 등 OECD의 조사 도구들은 성인들의 전 수준의 역량을 측정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 국가는 기초 문해력 수준에 집중된 문해 조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Sfl는 IALS의 2수준에 해당하는 문해력 조사를 하면서, 1수준을 다시 하위 수준인 4 수준(수준1, 엔트리 수준1, 엔트리 수준2, 엔트리 수준3)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IVQ는 ANLCI 모듈에서 IALS의 수준1에 해당하는 기초 수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하위 4개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LEO는 수준1에 해당하는 성인들을 집중 판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의 Sfl처럼 하위 4 수준(알파 1~알파4)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DfES, 2001, 2003; 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

<표 2> 문해력 조사 연구에서 문해의 수준

구분	조사연구과제명	문해 수준
국내	문맹자 조사 (김종서, 1961)	문맹: 순문맹, 半解 문해: 최저문해, 기능문해
	도시 저소득층 여성의 문해문제와 사회교육참여 (황종건·윤복남·이지혜, 1987)	비문해: 비문해, 준문해 문해: 기초문해, 기능문해
	농촌여성의 문해 수준연구(정지웅 외, 1989)	비문해/문해(기초)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 연구(최운실·백은순, 1989)	초보문자문해 / 기초문해(초6수준)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 조사 연구 (이희수 외, 2001)	영역별 각1-5단계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이희수 외, 2002)	초등학교 6학년 수준(기초1-3수준)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2008)	중학교 3학년 수준 문해력부진: 0-1수준 문해력보유: 2-4수준
국외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Level 1-5

Survey)조사(OECD & Statistics Canada 1995, OECD & HRD Canada 1997)	
ALL(Adult Literacy & Lifeskill 조사 (OECD & Statistics Canada, 2000)	수준 구분 없음(점수)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OECD, 2013)	수준 구분 없음(점수)
UNESCO의 문해측정 및 모니터링프로그램(LAMP) (UIS, 2009)	Level 1-3 Level 4-5는 고도 문해 (Level 1 에 집중)
영국의 Skills for Life조사 (DfES, 2001, 2003)	Entry Level 1-3 Level 1-2
프랑스의 IVQ 문해조사 (ANLCI, 2011)	IVQ 모듈구분 Level 1, 하위 3수준 (기능 비문해)
독일의 LEO 조사 (Center for Literacy, 2013)	알파Level 1-4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문해 영역 및 수준을 설계함에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와 관련 조사 도구들을 검토해볼 때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문해 영역을 설정할 때 <표 1>에서 보았던 것처럼 OECD, UNESCO,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영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적으로 생활기능문해의 관점에서 문해력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DfES, 2001, 2003; 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이 문해 생활을 하는 생활 영역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때, 문해력에 대한 조사가 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Wanger, 2008), 성인들의 일상 속에서 문해력이 요구되는 정도(중요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해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문해/비문해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준별 문해력 판정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의 문해교육이 학력 보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고려하여(허준, 2008), 학력 중심의 수준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성인 문해력의 문항 영역과 수준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자료 분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문헌으로는 문해교육과 관련한 학술 자료를 검토하였고, 특히 최근에 문해력 검사 관련된 최근 국내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해외 문헌은 국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문해력 검사인 OECD의 IALS, ALL, PIAAC, UNESCO의 LAMP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문해력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문해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IVQ와 독일의 LEO 자료, 영국의 Sfl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자료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문해 주요 영역과 수준 대한 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직관에 근거하여 미래예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추정하거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는 도구로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종성, 2006). 1차 델파이 조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에서는 문해력 측정 주요 영역, 문해력 측정 하위 영역, 문해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문해 영역의 하위 영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13년 7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문해 조사 수준과 1차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설정된 문해 영역 설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문해 영역의 하위 내용별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차에 걸쳐 문해 영역과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로 3차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2. 조사대상

델파이 조사 대상은 문해교육 전문가 12명과 평생교육 전문가 12명, 총 24명이다. 1차에는 24명 중 22명이, 2차에서는 24명 중 15명이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참여 대상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

구분	성명	소속	해당부문 경력	조사 참여 여부	
				1차	2차
문해교육 전문가	박지혜	A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김민철	A시 성인중고등학교 교감	20년 이상	○	○
	이은하	A어머니학교 교장	20년 이상	○	○
	도형철	B시 평생학교 교장	20년 이상	○	○
	이소연	A국공립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 담당자	5년 이상	○	○
	이연화	B문해학교 교사	10년 이상	○	-
	임현진	B대학교 교수	20년 이상	○	-
	김도훈	C문해학교 교감	20년 이상	○	-
	서민영	D문해학교 교장	20년 이상	○	-
평생 교육 전문가	조민경	A복지관 평생교육사	20년 이상	○	○
	이영진	C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김호진	D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허인영	E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최연희	F대학교 연구원	5년 이상	○	○
	윤인행	G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오연희	B국공립평생교육기관 실무책임자	10년 이상	○	○
	김선호	H대학교 교수	10년 이상	○	○
	여연수	I대학교 교수	10년 이상	○	○
	이철희	J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이수진	F대학교 연구원	5년 이상	○	○
	한영호	K대학교 교수	5년 이상	○	○
	최보영	C국공립평생교육기관 실무책임자	20년 이상	○	-

* 전문가 이름은 가명 처리함.

3. 조사도구

1차 조사는 문해 영역과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도구는 문해 영역별 단기/ 중장기적 중요도, 문해 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문해 영역별 중요도와 내용, 문해 수준별 문해 능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해 영역별 단기/중장기적 중요도의 경우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영역별 중요도를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추가로 국민 기초 문해력 측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추가 문해 영역 및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문해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의 경우 상대적 우선순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9점 척도를 활용한 쌍대비교 문항을 구성하여 이후 그 결과를 AHP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해 영역별 중요도와 내용의 경우, 연구진이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문해 영역, 문항 형식 및 생활 영역 중심으로 설계한 이항분류표(가안)을 검토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5개 선택 및 추가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진이 설정한 문해 영역, 문항 형식, 생활 영역에 대한 의견과 이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문해 영역별 문항 형식에 대한 분류는 2007년 이루어진 ‘성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의 국어, 사회, 수학 영역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허경철 외, 2007).

<표 4> 성인 문해력 조사 도구 이항분류표(가안)

형식	내용	가정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	추가의견
산문문해	정보전달문						
	설득문						
	생활문						
	문학						
	추가의견						
문서문해	표						
	그래프						
	지도						
	서식						
	추가의견						
수리문해	수와 연산						
	규칙성과 함수						
	확률과 통계						
	도형						
	추가의견						
	추가의견						

2차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해 수준 및 문해 영역 설정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문해 영역 비중, 문해 측정 영역, 문해 능력 수준 등이다. 문해 영역 비중의 경우, 1차 조사결과 분석된 문해 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중요도)에 대해 가중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정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문해 측정 영역의 경우, 문해 측정 영역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생활영역 설정 수준, 산문 문해 영역 설정 수준, 영역별 문항 수, 영역별 난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문해 능력 수준의 경우, 문해 수준 설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기

초 문해 수준 결정 방법, 문해 수준 제시 방법, 문해 수준 서술 방식, 측정 도구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기초통계분석 및 의견 유목화를 실시하였다. 성인 기초 문해력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전반적인 경향과 동시에 상반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등 응답을 요약할 수 있는 수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2차 델파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정 의견을 수집하였으므로, 조사 항목별로 동의도 수준을 확인하고 조정의견이 전체 의견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였다.

특히 문해 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결과에 대해 계층분석과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실시하였다.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현장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요소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 근거를 경험적으로 마련하고자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백순근·길혜지·박경인, 2012; Satty & Vargas, 2001). 본 연구에서는 우선 수집된 모든 설문지 22부에 대한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 검정을 실시하고, 판단의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자료 17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일관성 비율은 응답자의 평가가 무작위로 이루어졌다는 영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에 해당하며, i 를 j 보다 x 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j 를 k 보다 y 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i 는 k 보다 xy 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이훈병·윤건호, 2008).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 값이 0.1보다 작은 경우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0.2보다 작은 경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Satty & Vargas, 2001). 여기에서는 CR ≤ 0.2 의 기준에 따라 각 분석에 있어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만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별 전문가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각 평가자들이 작성한 쌍대비교행렬 원소들의 기하평균을 구하고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였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5). 이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Expertise Choice 11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문해 영역과 중요도

가. 문해 영역별 단기/중장기적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문해의 3가지 영역별 중요도를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에서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문서문해를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산문문해와 문서문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리문해는 단기와 중장기에서 모두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문해 영역별 단기적 중요도와 중장기적 중요도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15명 전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인 문서문해가 가장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문서문해와 더불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인 산문문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문해의 영역별 중요도

영역	1차		2차
	단기적 중요도 (5점 만점)	중장기적 중요도 (5점 만점)	동의도
산문문해	4.24점	4.52점	100.0%
문서문해	4.29점	4.52점	100.0%
수리문해	4.05점	4.43점	100.0%

나. 문해 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CR \leq 0.2$ 의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 17명의 쌍대비교 응답 값을 종합하여 산출한 3가지 영역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전문가들은 산문문해(45.0%), 문서문해(35.7%), 수리문해(19.3%)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영역별 가중치를 산문문해 45%, 문서문해 35%, 수리문해 20%로 조정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15명 전원이 동의하였다. 이는 향후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시 문항 배정 혹은 영역별 점수를 종합한 총점 산출시 가중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6> 문해 영역별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의견

영역	1차 조사 분석 결과	2차 조사	
		조정 의견	동의도
산문문해	45.0%	45.0%	100.0%
문서문해	35.7%	35.0%	100.0%
수리문해	19.3%	20.0%	100.0%

다. 문해 영역별 중요도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문해력 측정의 형식과 문해 영역별 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1차 델파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기본틀에 대해 전문가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각 문해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셀 5개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이항분류표(안)에 대한 세부적인 형식과 내용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문해 세부 내용 및 형식별 중요도 (응답수, %)

형식 \ 내용		가정 생활	경제 생활	공공 생활	여가 생활	미디어 생활	기타	소계
산문문해	정보전달문	9 (9.7)	13 (14.0)	6 (6.5)	5 (5.4)	7 (7.5)	1 (1.1)	41 (44.1)
	설득문	0 (0.0)	1 (1.1)	9 (9.7)	0 (0.0)	7 (7.5)	0 (0.0)	17 (18.3)
	생활문	10 (10.8)	0 (0.0)	1 (1.1)	8 (8.6)	1 (1.1)	0 (0.0)	20 (21.5)
	문학	2 (2.2)	0 (0.0)	0 (0.0)	9 (9.7)	1 (1.1)	2 (2.2)	14 (15.1)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1.1)	0 (0.0)	1 (1.1)
소계		21 (22.6)	14 (15.1)	16 (17.2)	22 (23.7)	17 (18.3)	3 (3.2)	93 (100.0)
문서문해	표	3 (3.2)	12 (12.6)	5 (5.3)	0 (0.0)	5 (5.3)	0 (0.0)	25 (26.3)
	그래프	3 (3.2)	9 (9.5)	6 (6.3)	1 (1.1)	5 (5.3)	0 (0.0)	24 (25.3)
	지도	1 (1.1)	0 (0.0)	0 (0.0)	16 (16.8)	0 (0.0)	0 (0.0)	17 (17.9)
	서식	6 (6.3)	9 (9.5)	8 (8.4)	1 (1.1)	3 (3.2)	0 (0.0)	27 (28.4)
	기타	0 (0.0)	0 (0.0)	0 (0.0)	0 (0.0)	2 (2.1)	0 (0.0)	2 (2.1)

소계		13 (13.7)	30 (31.6)	19 (20.0)	18 (18.9)	15 (15.8)	0 (0.0)	95 (100.0)
수리문해	수와 연산	14 (13.3)	12 (11.4)	3 (2.9)	6 (5.7)	2 (1.9)	0 (0.0)	37 (35.2)
	규칙성과 함수	2 (1.9)	7 (6.7)	0 (0.0)	0 (0.0)	2 (1.9)	0 (0.0)	11 (10.5)
	확률과 통계	1 (1.0)	10 (9.5)	5 (4.8)	2 (1.9)	3 (2.9)	0 (0.0)	21 (20.0)
	도형	5 (4.8)	3 (2.9)	3 (2.9)	2 (1.9)	3 (2.9)	0 (0.0)	16 (15.2)
	측정	8 (7.6)	2 (1.9)	4 (3.8)	6 (5.7)	0 (0.0)	0 (0.0)	20 (19.0)
소계		30 (28.6)	34 (32.4)	15 (14.3)	16 (15.2)	10 (9.5)	0 (0.0)	105 (100.0)

먼저 산문문해 영역의 경우, 내용 측면에서는 여가생활과 가정생활의 중요도가 각각 응답률 23.7%, 22.6%로 가장 높았으며, 형식 측면에서는 정보전달문의 중요도가 응답률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에서는 정보전달문(9.7%)과 생활문(10.8%)이, 경제생활에서는 정보전달문(14.0%)이, 공공생활에서는 설득문(9.7%)이, 여가생활에서는 문학(9.7%)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서문해 영역의 경우, 내용 측면에서는 경제생활의 중요도가 응답률 31.6%로 가장 높았으며, 형식 측면에서는 서식의 중요도가 응답률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생활에서는 표(12.6%), 그래프(9.5%), 서식(9.5%)이, 여가생활에서는 지도(16.8%)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리문해의 영역의 경우, 내용 측면에서는 경제생활에서 중요도가 응답률 32.4%로 가장 높았으며, 형식 측면에서는 수와 연산의 중요도가 응답률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에서는 수와 연산(13.3%)이, 경제생활에서는 수와연산(11.4%)과 확률과 통계(9.5%)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2차 델파이를 통해 분석된 각 영역별 문항 수 비율은 <표 8>과 같다. 산문문해의 경우 경제생활에 대한 정보전달문 형식의 문항이 15% 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문해의 경우 여가생활에 대한 지도 형식의 문항이 20% 배정될 필요가 있으며, 수리문해의 경우 가정생활에 대한 수와 연산 형식의 문항이 15% 배정될 필요가 있다.³⁾

3) 연구진이 제시한 문해 영역 및 생활 영역 외에 전문가들이 제시한 영역(<표 7>에서 ‘기타’)에 대한 중요도 응답이 낮아 여기에서는 제외 하였다.

<표 8> 문해 세부 내용 및 형식별 문항수 비율(%)

영역	내용	가정생활	여가생활	미디어 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계
	형식						
산문 문해	정보전달문	10	5	10	15	5	45
	설득문	-	-	5	-	10	15
	생활문	10	10	5	-	-	25
	문학	5	10	-	-	-	15
	계	25	25	20	15	15	100
문서 문해	표	5	-	5	15	5	30
	그래프	5	-	5	10	5	25
	지도	-	20	-	-	-	20
	서식	5	-	-	10	10	25
	계	15	20	10	35	20	100
수리 문해	수와 연산	15	5	-	10	5	35
	규칙성과 함수	-	-	-	5	-	5
	확률과 통계	-	-	5	10	5	20
	도형	5	-	5	5	5	20
	측정	5	5	-	5	5	20
	계	25	10	10	35	20	100

2. 문해력 수준과 난이도

가. 문해력 수준

문해 수준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 <표 9>와 같다. 먼저 기초문해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완전 비문해, 반문해, 부분 문해 등 기초 수준별로 세분화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57.1%)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문해 수준 제시 방법과 서술 방식의 경우 학교 급별(예: 초등 수준, 중학 수준 등) 방식 보다는 이해, 활용, 쓰기 등 술어 영역에 따라(42.9%), 그리고 IALS 문해 수준에 대한 기술처럼 일상적인 문해 수준을 포괄적으로(71.4%) 제시 또는 기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초 문해 수준 측정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완전 비문해와 반문해를 포함하여 중학교 수준까지의 문해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64.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9> 문해력 수준에 대한 주요 의견

쟁점상황	다수 의견	응답률 (%)
기초 문해 수준의 구분	기초 수준별로 세분화(예) 완전비문해, 반문해, 부분문해	57.1
문해 수준 제시 방법	이해, 활용, 쓰기 등 술어 영역에 따라 수준 제시 : 문장 이해 수준, 문장 쓰기 수준, 어휘력 등	42.9
문해 수준 서술 방식	포괄적인 방식 : IALS 문해 수준에 대한 기술처럼 일상적인 문해 수준을 포괄적으로 기술	71.4
기초문해 수준 측정 범위	완전비문해 반문해를 포함하여 중학교 수준까지의 문해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	64.3

나. 문항 형식 및 내용별 난이도 수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문항 형식과 내용별로 적합한 난이도 수준을 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문항 형식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해력이 필요한 영역 2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해력이 요구되는 영역 2개를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높은 문해력에는 1점, 낮은 문해력에는 -1점을 부여하여 각 셀별로 응답 총점을 분석한 결과, 내용 측면에서 가정생활이 총 -31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해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생활이 3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해력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에서 표의 형식을 활용하는 것은 난이도가 -8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경제생활에서 규칙성과 함수를 활용하는 것은 난이도가 6으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해당 문항 개발 시 난이도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문항 형식과 내용별로 요구되는 문해 수준

영역	내용 형식	가정생활	경제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 생활
산문 문해	정보전달문	-4	5	3	-3	-2
	설득문			5		0
	생활문	-3			-1	0
	문학	-1			1	
문서 문해	표	-8	5	0		0
	그래프	-4	1	0		0
	지도				0	
	서식	-1	5	2		
수리 문해	수와 연산	-6	4	2	-4	
	규칙성과 함수		6			
	확률과 통계		3	0		-1
	도형	-1	-1	0		-1
	측정	-3	2	0	0	-
계		-31	30	12	-7	-4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성인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 영역과 문해 수준을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국내외 유사 조사도구 분석을 통해 문해 영역과 수준에 대한 질문지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문해 영역, 문항 형식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문해 영역별 중요도 및 난이도 수준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해 세부 내용 및 형식별 문항수를 설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틀인 IALS의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 영역에 따른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 등 독자적인 문해력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동향을 따르는 결과였다(DfES, 2001, 2003; 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해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해 영역별 AHP 분석 결과 산문문해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45%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문서문해 35%, 수리문해 20%였다. 이러한 문해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실

증 자료는 문해 영역의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존 국내외의 문해력 조사도구와 차별화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문항 개발 시 문항 수 배정과 총점 산출시 가중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 문항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해 영역과 문항 형식, 그리고 생활 영역을 확정하고 각 영역별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문해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산문문해는 여가생활로, 문서문해와 수리문해는 경제생활로 나타났다. 또한 문해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형식은 산문문해는 정보전달문이, 문서문해는 서식이, 수리문해는 수와 연산으로 나타났다. 문해력 조사도구가 해당 사회와 문화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Wanger, 2008; ANLCI, 2011), 생활 영역과 문해 형식 등에 따른 중요도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문해력 조사도구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향후 문해력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문항 수 혹은 배점을 배정하고, 문해 영역별로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 문해력 측정 범위와 수준은 일상생활의 맥락의 고려함과 동시에 학력 수준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상의 수준에서 문해력 수준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보는 한편 중학 수준까지의 문해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초 문해 수준을 초등 수준으로 설정한 이희수 외(2002)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이 수준은 일반적으로 기초 문해력의 수준을 IALS가 설정한 수준1에서 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IVQ와 독일의 LEO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ANLCI, 2011; Center for Literacy, 2013), IALS의 수준2로 정하고 있는 영국의 Sfl와 중 3 수준에서 실시한 국립국어원의 ‘국가 기초 문해력 조사’와는 유사한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요구되는 기초 문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평생교육법상 성인 문해교육이 중학 수준까지라는 점(허준, 2008; 허준 외, 2011)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학력 수준에 대한 고려는 우리나라 문해교육에 대한 학력 중심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이지혜, 2003).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경우 기초 문해력 조사 문항은 일상 수준에서 필요한 문해력을 측정하되, 완전비문해자 판별, 성인 초등교육 대상자 판별, 성인 중학교교육 대상자 판별 등 수준별 측정이 가능한 방식대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기초 문해력 조사 도구를 개발할 때, 문해 영역별 가중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문해 영역별 중요도뿐만 아니라, 문해 형식과 생활 영역별 문해력의 중요도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문해 영역과 형식, 그리고 생활 영역별로 확일적으로 문항을 할당할 것이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문항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문항의 형식 및 내용별 문항수 비율이 산출된 바, 향후 본격적인 문항 개발 시에는 이를 기초로 하고 조사도구의 총 문항수 및 각 영역별 문항수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문항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성인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 시 문해 영역, 특히 생활 영역의 차이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영역별로 보면 가정생활, 여가생활, 미디어생활에서의 문해력은 쉬운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공공생활과 경제생활은 어려운 수준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생활 영역별 난이도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1989년 최운실·백은순의 연구에서 기초 수준 이상의 문해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최운실·백은순, 1989), 이후 기초 문해력 수준에서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생활 영역에 따른 문해력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낮은 수준(수준 1 이하)의 문항에는 가정생활, 여가생활, 미디어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를, 높은 수준(수준 2 이상)의 문항에서는 공공생활, 경제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성인 문해력 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문해 영역 및 수준 설계를 수행한 것이다. 이 결과는 향후 성인 문해력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성인 문해력 조사 문제은행 구축, 성인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인문해교육 데이터 생성을 위한 관련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3.10.8.). 2013년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주요 결과 발표 보도 자료. 고용노동부.
- 국립국어원 (2008).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김종서 (1961). 문맹자 조사: 1959년 12월 31일 현재. 중앙교육연구소. 김종서(1987). **현로 김종서박사 논문선집**. 서울: 교육과학사. 361-387.
- 백순근, 길혜지, 박경인 (2012).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중등교사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교육평가연구** 25(3). 389-409.
- 변종임, 허준, 이경아, 김기환(2012). **한국 성인 문해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오혁진, 허준 (2011).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교육의 사회교육사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7(4). 265-291.
- 이종성 (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지혜 (2003). 학습사회에서 성인문해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9(3). 57-74.
- 이지혜, 허준 (2014).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성인 문해력 조사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4(3). 101-125.
- 이훈병, 윤건호 (2008). 교육연구에서 계층분석과정의 활용가능성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4). 115-137.
- 이희수, 이지혜, 안도희, 변종임, 박상옥, 이현석 (2002).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한유경, 박현정, 이세정, 이정희, 권재현 (2001), **한국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언, 최동선, 최지희, 오은진 (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 연구: OECD ALL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지웅, 최민호, 김성수, 임상봉, 임상태 (1989). 한국농촌여성의 문해수준.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21(1). 1-7.
- 정태화, 임언, 심은선, 오은진 (2003).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5).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원출판사.
- 최운실, 백은순 (1989).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경철, 김재춘, 최미숙, 김왕근, 박경미, 신동희, 이소영, 이경아, 허준 (2007). **성인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준 (2008). 학습사회론에 비추어본 문해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4(4). 57-74.
- 허준, 이지혜, 채재은, 노일경, 서영아 (2011). **성인 문해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허준, 이지혜, 박소연, 길혜지 (2013). **성인 기초 문해력 조사 측정 도구 개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황종건, 윤복남, 이지혜 (1987), 한국 도시여성의 기능적 문해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연구.
- ANLCI (2011). *Illiteracy: the statistics*. ANLCI.
- Center for Literacy(2013). *Adult literacy testing in Germany*. Hamburg University.
- DfES (2001). *Skills for life: The national strategy for improving adult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UK: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DfES (2003). *The Skills for Life survey: A national needs and impact survey of literacy, numeracy and ICT skills*. UK: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Druine, N. & Wildemeersch, D. (2000). The vocational turn in adult literacy education and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6(5). 391-405.
- Freire, P. & Macedo, D. (1987). *Literacy, Reading the World & the World*. New York: Bergin & Garvey.
- Hamilton, M. & Barton, D. (2000).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what does it really measure?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6(5), 377-389.
- Harman, D.(1970), Illiteracy: Overview. *Harvard Educational Review* 40(2). 226-243.
- Jeantheau, J. P.(2013). *IVQ: more than a national survey, more a basis for an indicators net*. The European Basic Skills Network Annual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2013.
-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OECD
- OECD & HRD CANADA (1997). *Literacy skills for the knowledge society: further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 HUMAN

-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OECD & Statistics Canada (1995), *Literacy, economy and society: resul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and Ottawa: OECD & Statistics Canada.
- OECD & Statistics Canada (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and Ottawa: OECD & Statistics Canada.
- Satty, T. L. & Vargas, L. G. (2001). *Models,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cribner, S. (1984). Literacy in three metaphor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3. 6-21.
- UIS (2009). *The next generation of literacy statistics: implementing the literacy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gramme (LAMP)*.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Wagner, D. (2008). Adult literacy: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practice and polic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4, 651-672.
- Youngman, F. (2006). Adult literacy and the mode of production. In Peter Jarvis, *From Adult Education to the Learning Society*(54-68). NewYork: Routledge.

· 논문 접수 2014. 7. 30 / 수정본 접수 9. 16 / 게재 승인 9. 30

- 박소연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프로그램평가, 역량평가, 문화예술교육 등임.
- 이지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음, 현재 한림대 교직과 교수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문해교육, 성인학습, 교육복지 등임.
- 허 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 분야는 문해교육, 공동체 학습, 지역사회교육임.

Abstract

A Study on the Survey Design of the Domains & Levels of Literacy for Developing Adult Literacy Assessment Items

Park, So Youn (Anyang University)

Lee, Ji Hye (Hallym University)

Heo, Joon (Yeo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design the domains and levels of adult literacy for developing adult literacy assessment. For the purpose, the related documents and surveys are analyzed and the assessment on the adult literacy domains and levels are developed. It is examined by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adult literacy education through Delphi method and AHP analysis.

As the results, the adult literacy domains, the form of question and the consensus of everyday life domains by the specialists are derived. And the level of importance and difficulty by adult literacy domains are confirmed. Therefore, the framework of the assessment on literacy domains and the assignment of the questions by levels are designed.

This framework would be the base of developing the measurement and the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It suggests that there are needs to conduct the following research for collecting data of adult literacy and to produce the empirical data refl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adult literacy education.

* Key words: Adult literacy, Adult literacy Assessment, Domains of Adult literacy,
Levels of Adult Literacy